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사상*

강경림

(안양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머리말

흔히 종교개혁 하면, 로마 교황청과 성직자들의 도덕적 부패만을 정화하기 위한 운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신학사상의 틀을 문제삼았고, 그것을 공격했던 것이다. 쯔빙글리의 종교개혁 역시 로마교황주의의 윤리적 타락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연구하였으며, 그것을 글로 펴내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또한 정립된 그의 신학 사상으로 가차없이 로마교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게된 것은, 처음에 에라스무스와 같은 인문주의 거장에게 많은 영향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문주의자들로부터 성경 원문에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훈련받은 것을 그의 신학작업에 활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쯔빙글리의 학문의 성취 과정을 추구해 나가며, 그렇지만 왜 그가 인문주의와 결별하고 종교개혁 정신으로 완전 무장했는지를 논구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1998년 10월 30일 본교 개교 50주년·종교개혁 481주년 기념 제2회 국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되었다.

I. 쾰빙글리의 종교개혁 준비기간

1. 쾰빙글리의 출생과 교육

쾰빙글리는 겉으로 보기에 차라리 거친 스위스 농부라고 함이 좋을 것이다. 그는 스위스 방언인 독일어(Swiss-German)로 말하고, 글로 썼다. 루터는 그를 두고 말하기를 “그를 이해하기 전에는 땀겨나 흘리게 만드는”, “털이 텃수룩하고 헝클어져 있는 독일 사람”이라고 하였다.¹⁾

쾰빙글리는 1484년 1월 1일, 루터보다 7주 후, 토겐부르크²⁾ 백작령의 빌트하우스(Wildhaus)라는 마을, 나지막한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다.³⁾ 그가 태어난 가정은 펍 부유한 편이었다. 그의 부친은 유복한 농부였고, 그의 어머니는 신부(神父)의 누이였으며, 그의 숙부 바돌로메(Bartholomew)는 이웃에 널리 알려진 성직자였다.⁴⁾ 또한 그의 가정은 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었고 사회적 책임에 민감하였다.⁵⁾

쾰빙글리는 천부적으로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으며 그 재능을 학교와 대학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곤 하였다고 한다.⁶⁾

그는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와 인문주의 학문을 선호하는 베젠(Wesen)의 수석 사제인 그의 숙부 바돌로메에 의하여 가톨릭 교육을 받고 자랐다. 10살 때 그는 베젠에서 바젤(Basel)에 있는

1) G.R. Potter, “Zwingli and Calvin,” *The Reformation Crisis*, ed. by Joel Hurstfield (London: Edward Arnold LTD, 1965, 1968²), p.32.

2) Toggenburg 는 지금 St. Gall 영지에 속해 있음.

3)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VIII (Grand Rapids, Mich.: erdmans Co., 1984²), p.21.

4) G.R. Potter, op. cit., p.32.

5) Richard Stauffer, 「종교개혁」 박근택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9), p.58.

6) G.R. Potter, op. cit., p.32.

라틴어 학교로 가서 그 곳에서 라틴어 문법과 음악과 변증학을 배웠다.⁷⁾ 그는 바젤 대학에서 고전 라틴어로 자기 사상을 훌륭하게 표시할 수 있을 정도였다.⁸⁾

1498년 그는 벨플린(Heinrich Wölflin)⁹⁾이 책임자로 있는 베른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1500년에서 1502년까지 그는 비엔나 대학에서 수학했다. 이 학교는 고전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는 스콜라 철학, 천문학, 물리학 등과 특히 고대 고전문학을 공부하였다.¹⁰⁾

1502년 그는 다시 바젤로 돌아가서 마르탱(St. Martin) 학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며,¹¹⁾ 또한 그의 고전 문학 공부를 계속한 결과 1504년에는 문학사 학위를, 1506년에는 문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당시 그는 유명한 화가 프로벤(Froben)과 사귀음 가짐으로써 인문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로, 교양인이면서 동시에 성직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공부를 마무리하고 있을 무렵 다행히도 그는 토마스 비텐바흐(Thomas Wytttenbach)와 접촉하게 되었다. 비텐바흐는 아마 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쾰빙글리는 “케변론자들의 헛된 재잘거림을” 거부하고, 연구와 목회 사역 사이의 연결을 갖도록 하는데 비텐바흐의 도움이 컸음을 시인하면서 그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있다.¹²⁾ 그래서 그는 비텐바흐를 두고, 자기로 하여금 교회의 악습들, 특히 면죄부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해 주었으며, 더욱이 “교회의 열쇠들에 의존하지 말고, 죄의

7) P. Schaff, op. cit., p.22.

8) P.R. Potter, op. cit., p.32.

9)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고전 학자로 평판이 나 있었으며, 1522년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한 인물이다.

10) P. Schaff, op. cit., p.23.

11) Ibid.

12) Jaques Courvoisier, *Zwingli: A Reformed Theologian* (Richimond, Virginia : John Knox Press, 1963), p.13.

사함을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만 찾으며, 그리고 신앙의 열쇠에 의하여 죄사함에 도달하도록 할 것”¹³⁾이란 가르침을 자기에게 베푼 사랑스럽고 신실한 선생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그곳에서 나중에 취리히에서 핵심 동역자로 일하게 되는 유틀(Leo Jud)라는 동기생을 만났다. 그는 루터처럼 신학박사의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다.¹⁴⁾ 이때까지의 쾰빙글리는 루터처럼 죄에 대한 고민이나 사죄의 체험 등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지성적이며 강경한 종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¹⁵⁾

2 쾰빙글리의 글라루스(Glarus)에서의 사역

쾰빙글리는 콘스탄츠(Konstanz)의 감독에게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리고 글라루스 주의 수도인 글라루스(Glarus)의 목회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교황의 총애를 등에 업고 글라루스 교회를 맡으려고 시도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겔들리(Göldli of Zürich)를 물리치기 위하여 100길더(guilders)이상의 돈을 지불했어야만 했다.¹⁶⁾ 1506년 9월 29일 그는 안수 받은 사제로서 자기 고향 마을에서 첫 미사를 집전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2세였으며, 그는 아주 관습적인 방법으로 즉 교회의 규례에 따라 자기 목회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 한 예를 들면, 1516년 여름 어느 날, 장마철 이후 좋은 날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도들의 무리가 긴 행렬을 지어 성가를 부르며 나아가고 있을 때, 그는 그 행렬 맨 선두에 서 있었던 것이다.¹⁷⁾

쾰빙글리는 신실한 사제였다. 이같은 사실은 1523년에 쓴 그의 글

13) *Werke*, I.A. 254; *Opera*, III. 544, in Philip Schaff, op. cit., pp.23-24.

14) Philip Schaff, *ibid.*

15)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69), p.386.

16) Philip Schaff, op. cit., p.24

17) Jaques Courvoisier, op. cit., p.13.

에 잘 드러난다. “내가 비록 어리지만, 교회의 임무들은 내 속에 기쁨보다는 경외심을 불어넣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부주의의 결과로 소멸될 수도 있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해 설명해야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며,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⁸⁾ 그는 글라루스에서 10년간(1506-1516) 봉직하였다. 그는 설교, 가르침, 교구 돌보는 일, 그리고 체계적인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는 목회 일과 함께 학문적인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교구 관사의 1층에서는 자신이 기거하면서 교구민을 만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였고, 2층에서는 연구하는 일, 즉 라틴어와 헬라어를 숙달하고, 더욱이 고대의 고전 문헌들과 친숙하게 지내는 시간을 가졌다.¹⁹⁾ 그는 신약 성경을 원어로²⁰⁾ 연구하기 위해 “선생도 없이”(Absque duce) 헬라어 공부를 시작했고, 놀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²¹⁾

성도덕(性道德)에 있어서 건장한 쾰링거리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의 말에 따르면, 6개월 혹은 심지어 1년 이상 순결을 유지했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취리히에서 결혼하고 나서는 좋은 남편과 좋은 아버지로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²²⁾

애국심 또한 쾰링거리의 생애 가운데 특징적인 것으로 꼽힌다.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애국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애국심은 그로 하여금 그의 목회 사역 초기부터, 외국에

18) Oskar Farnet, *Huldrych Zwingli*, vol. II (Zürich: Zwingli Verlag, 1943), p.44.

19) Jaques Courvoisier, op. cit., pp.13-14.

20) 쾰링거리가 요아킴 바트(Joachim Watt from Glarus)에게 1513년 2월 23일자로 보낸 편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Opera*, VII, 9) : “Ita enim Graecis studere destinavi ut qui me praeter Deum amoveat, nesciam, on gloriae (quam nullis in rebus quaerere honeste possem), sed sacratissimarum terarum ergo.”

21) Philip Schaff, op. cit., p.24.

22) Jacques Courvoisier, op. cit., p.14.

서 피를 흘리며 돈을 벌려하는 스위스 용병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게끔 하였다. 쾰빙글리는 전쟁을 싫어했다. 교황이 고용한 스위스 군인들과 더불어 그는 종군 사제로서 이탈리아의 몬짜(Monza)와 마리그나노(Marignano) 전투 등에 참가했다. 그는 당시 뛰어난 외교관이요, 교황의 충복이었던 쉬너(Schiner) 추기경과 정치적 이념들을 나누었다. 그러나 결국은 쾰빙글리는 원래 자기 모습으로 되돌아가, 외국의 세력과 그 어떤 결탁도 반대하였다. 그 당시 스위스는 가난했기 때문에, 용병은 스위스의 수입원이었던 것이다. 용병으로 인해 돈은 풍부해졌지만 동시에 나쁜 습관들과 거친 말씨가 점점 증가해 나갔다. 이 용병제도를 대항하여 투쟁하면서, 쾰빙글리는 자기 나라의 영적 복지를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다음의 글에서 그같은 의도가 잘 반영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우리는 이미 악에 물들어 있다. 종교는 우리 가운데 이제 중단되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잠자는 늑은 개처럼 경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무찌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는 그들이 자유를 위해 전쟁터에 나간 것이지, 돈을 위해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²⁴⁾

그의 최초의 저술인 *Fable of the Ox*는 용병제도 내에 숨겨져 있는 위험을 다소 조잡하게 경고한 작품이다.²⁵⁾

그가 글라루스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의 친구 로레티(Loreti of Glarus)를 통하여 에라스무스와 서신왕래를 하였다. 1515년 봄에 그는 에라스무스를 방문한 적도 있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책들을 밤마다

23) Ibid.

24) E. Egli and G. Finsler ed.,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Corpus reformatorum)*, vol. I (Leipzig : Heinsius, 1905), pp.171ff.

25) Hugh Watt, "Zwingli",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12, ed. James Hastings (Edinburgh : T. & T. Clark, 1911, 1981), p.873.

탐독하였다. 그는 분명히 에라스무스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가 이 방 고전 작품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게 되고, 또한 교회의 오류들을 반대하게 되고,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며, 죄에 대한 온건한 유전관(遺傳觀) 및 성찬 제정의 말씀들을 기념설로 최초로 제시한 점²⁶⁾ 등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²⁷⁾ 그러나 그는 에라스무스의 반펠라기안주의(Semi-Pelagianism)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쾰빙글리는 예정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 사이에 개인적인 논쟁은 없었을지라도 점점 관계가 소원해졌다. 1522년 9월 3일자 한 서신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용감할 뿐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쾰빙글리와 싸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Tu pugna, mi Zwingli, non modo fortiter, verum etiam prudenter. Dabit Christus, ut pugnes feliciter).”²⁸⁾ 1526년 바덴(Baden)의 논쟁에서 에라스무스는 엑크(Dr. Eck of Ingolstadt)를 도와 주었다. 이것으로 봐서 위대한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로마 가톨릭 편에 늘 서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쾰빙글리는 인문주의자들로부터 학문적인 훈련을 받은 후에 그는 자기 생애를 통틀어 그들의 방법을 견지하였다. 특히 자료들에 의

26) 멜랑톤이 1529년 10월 12일에 기록한 글을 보라 : “Cinglius mihi confesit, se ex Erasmi scriptis primum hausisse opinionem suam de caena Domini.” *Corp. Reform.* IV.970, in : Philip Schaff, op. cit., p.25.

27) 에라스무스의 *Philosophia Christi*를 통하여 쾰빙글리는, 진정한 기독교 철학은 예수와 그의 위대한 제자 바울의 도덕적 가르침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한다는 확신에 차있었다.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Ad fontes*는 지침이 되었다. in : Hugh Watt, op. cit., p.873.

28) Opera, VII. p.221.

29) Jaques Courvoisier, op. cit., p.16.; Ulrich Gäbler, *Huldrych Zwingli : Eine Einf 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 C.F. Beck, 1983), pp.41-42.

돌아가고자 하는 인문주의자들의 습관, 그리고 그들의 엄격한 지성적 훈련 등은 쾰빙글리가 늘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었지,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마침내 사이가 벌어지고 원수지간이 되었다.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 그들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덕의 전형(典型)을 보았지만, 인문주의는 자기 자신 속에서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주는 구세주를 보았던 것이다. 인문주의는 복음을 죄없는 삶을 위한 하나의 법전(code)으로 간주하였지만, 종교개혁은 주어진 의(義)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의로 간주하였다. 쾰러(Walther Köhler)의 언급대로 인문주의는 본질적으로 도덕은 알고 있으나,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능력은 보지 못한다.³⁰⁾ 따라서 쾰빙글리가 인문주의의 본류와 결별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쾰빙글리는 글라루스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스위스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샤프(Philip Schaff)는 글라루스에서의 쾰빙글리를, 신학자와 종교지도자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문주의자로 그리고 애국자로 보고자 한다.³¹⁾ 이는 그가 지성적 문화와 정치적 개혁에는 열심이었으나, 교회의 종교적 복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다.³²⁾

3. 쾰빙글리의 아인지델른(Einsiedeln)에서의 사역

1516년 쾰빙글리는, 마리그나노(Marignano)에서 프랑스가 승리(1515년)한 후 득세하게 된 프랑스인 정당의 음모에 의해 글라루스를 떠나게 되어, 아인지델른의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아인지델른

30) Walther Köhler, *Huldrych Zwingli* (Leipzig : Köhler & Amelang, 1943), p.66.

31) Philip Schaff, op. cit., p.27.

32) Ibid.

은 가톨릭 영지인 슈비쯔(Schwyz)에 베네딕트파 수도원을 가진 마을이었다. 이 마을의 수도원 도서관은 설교자들에게 연구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

쯔빙글리는 성경과 교부들에 관한 지식을 상당히 많이 축적하였다. 그는 에라스무스의 주석들과 오리겐, 암브로즈, 제롬 그리고 크리스소스톰 등의 주석들을 독파하였다. 그는 루터보다는 덜 어거스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오리겐, 제롬 그리고 크리스소스톰 등을 더 강조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저작들 속에 어거스틴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본다.³³⁾ 특히 그는 교부들과 친숙하게 되면서, 초대 교회의 교리들과 실천들이 무시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교회의 신경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결코 동요됨이 없었고,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의 확신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³⁴⁾

1517년 그는 편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작은 책 속에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손수 멋지게 필사하였다. 필사한 헬라어 원본은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편집한 것이었다.³⁵⁾ 동시에 그는 강단에서 교회의 오류들과 면죄부 판매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미코니우스(Myconius), 불링거(Bullinger), 그리고 카피토(Capito) 등은 본질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쯔빙글리는 아인지델른에서 오류들에 대항하여 설교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가르쳤다.”³⁶⁾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출입구에 서있는 비명(碑銘)은 그의 주장 속에 새겨져 있었다. 즉 “죄와 형벌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사함

33) Ibid., p.30.

34) G.R. Potter, op. cit., p.33.

35) Philip Schaff, op. cit., p.31: Oswald Myconius, *Vita Hukrici Zwingli, Vitae Quatuor reformatorum* (Berlin : Neander, 1841), p.5.

36) Schaff, 같은 책, p.32.

은 이것으로 충분하다.”³⁷⁾

레나누스(Beatus Rhenanus)는 1518년 12월 6일 자의 어느 서신에서, 쾰빙글리가 면죄부를 공격하는 것을 성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쾰빙글리는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가장 순수한 철학을 깊은 샘으로부터 가르쳤다(…purissimam Christi philosophiam ex ipsis fontibus populo proponere…)”.³⁸⁾

이러한 강력한 논증에 근거하여 많은 역사가들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루터보다 1년 빠른 1516년부터 잡고 있다. 그러나 쾰빙글리가 아인지델른에서 행한 설교는 루터의 논제들(Theses)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샤프의 말을 빌리면, 그는 아직 행동의장에 뛰어들지 않았으며, 그는 종교적인 혁신보다는 고등 교육을 위해 애쓰는 단순한 에라스무스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로마 교회 내의 진보적인 사람일 정도였다. 즉 그는 아직 분리의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다.³⁹⁾

4. 쾰빙글리와 루터

이 정도에서 쾰빙글리와 루터와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양자는 근본적으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쾰빙글리는 루터와 손을 잡지 아니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달랐다.⁴⁰⁾

루터는 유명론자인 둔스 스코투스주의자들에게 교육을 받은 반면에, 쾰빙글리는 다소 실재론자들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루터는 인문주의자가 아닌 반면에, 쾰빙글리는 근본적으로 인문주의자였

37) 비명은 다음과 같다 : “Hic est plena remissio omnium peccatorum a culpa et a poena”, in : Philip Schaff, p.32.

38) Opera, VII. A.57.

39) Philip Schaff, op. cit., p.32.

40) Jaques Courvoisier, op. cit., p.17; Justo L. Gonzá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II (Nashville : Abingdon Press, 1983⁵), p.64.

다. 그렇지만 쾰빙글리가 루터를 칭찬한 것은 확실하다. 그는 루터를 종교개혁의 “엘리아”라고도 불렀고, “로마교의 야생 꿈을 죽인 다윗”이라고도 불렀으며, “천년에 한 사람 나타날까 말까 하는,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군병이라고도 불렀다.⁴¹⁾ 쾰빙글리는 루터의 이신득의론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빙글리는 자신이 루터파로 불려지기를 꺼려했다. 만약 쾰빙글리가 루터가 말한 것을 말했다면, 그것은 “그들 둘 다 같은 근원에서 마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왜 너희들은 나를 바울파라고 부르지 않는가? 나는 바울과 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교황주의자들이 나를 루터파라고 이름 붙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쳐 준 자는 루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약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내가 하는 것하고 똑같이 할뿐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이시며, 나는 그의 군병이라는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⁴²⁾

그러나 보다 더 큰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사고의 출발점에 놓여 있을 것이다. 루터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한 곳에, 쾰빙글리는 “나의 백성, 나의 국민이,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인가?” 라고 말한다. 에어푸르트(Erfurt)에서든지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든지 루터의 주된 관심은 그의 영혼 구원이었다. 그러나 쾰빙글리의 관심은 원칙적으로 스위스 국민의 구원이었다.⁴³⁾

41) Oskar Farnet, op. cit., vol. II, p.322.

42) Ibid., pp.324, 328; cf. Walter Köhler, op. cit., p.64: *Huldreich Zwingli's Sämtliche Werke*, vol. II ed. Egli, E., and Finsler, G. (Leipzig, 1908), p.149 (*Corpus Reformatorum*, vol. 89).

43) See, Arthur Rich, *Die Anfänge der Theologie Huldrych Zwingli* (Zürich : Zwingli-Verlag, 1949), in : Jacques Courvoisier, op. cit., pp.17ff.

쯔빙글리는 교황제도의 체계를 쉽게, 급속도로 허물어 버렸지만, 루터는 단계적으로, 깊은 생각 끝에 무너뜨렸다. 쯔빙글리는 루터보다 과격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법과 질서의 한계 내에서 했으며 그리고 광란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물이었다. 그 어느 한 편도 다른 편을 대신할 수 없었다. 루터는 독일을 위하여, 쯔빙글리는 스위스를 위해 예정된 인물이었다.⁴⁴⁾

II. 취리히에서의 종교개혁

1. 취리히로 부름 받음

아인지델른에서 순례자들을 향해 외친 그의 설교는 이미 그 도시 밖에까지 널리 알려져 있었다. 1518년 말, 취리히에 있는 그로스뮌스터(Grossmünster)⁴⁵⁾에 교구신부의 자리(Leutpriesterstelle)가 비어 있었다. 그는 그 해 27일에 부름을 받아 취리히로 가서 그 곳의 사람들로 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취리히는 스위스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 13개 자치주(自治州)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도(Vorort)였다. 이 도시는 주로 그 도시의 공장주들과 장인(匠人)들로 구성된 평의회에 의해 치리되고 있었다.

1519년 1월 1일은 그의 34회 생일을 맞이함과 아울러 그의 첫 직무가 시작되는 날이었다.⁴⁶⁾

44) Philip Schaff, op. cit., pp.35-36.

45) 그로스뮌스터 교회는 12세기에 건축되었으며,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손꼽히고 있다.

46) Ulrich Gäbler, *Huldrych Zwingli : Eine Einführung in sein Leben und sein Werk* (München : C.F. Beck, 1983), pp.44-45; Philip Schaff, op. cit., pp.38-40; G.R. Potter, op. cit., p.33.

2 설교 과제(Die Predigtaufgabe) 및 개인 연구

쾰빙글리는 취임하기 전에 교구민들에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야만 했다. 그 계획에 일치되게 쾰빙글리는 마태복음에 근거하여 “구세주 그리스도의 역사”(die Geschichte des Erlösers Christus)를 설교하기로 하고, 1519년 1월 1일,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해설해 나가기 시작했다(소위 연속강해: lectio continua).⁴⁷⁾ 쾰빙글리는 Pericopes라는 기존의 규정되어지고 관습적인 설교에서 탈피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 순간부터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⁴⁸⁾ 그는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등으로 나아갔고, 4년 후에는 묵시록을 제외하고 전 신약을 강해하였다. 그는 설교를 위해 헬라어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히브리어도 공부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의 설교는 평범하면서도 실제적이고, 인상적이며, 교리적이기 보다는 윤리적이었다.⁴⁹⁾

쾰빙글리는 틈나는 대로 젊은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또한 그는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투키디데스, 호머, 세네카 등의 고대 작품을 계속 읽었고, 그러나 그의 주된 관심은 성경과 교부들의 주석을 읽는 일이었다. 1519년에 바젤에서 루터의 책 몇 권이 출간되었을 때, 레나누스(Renanus)가 그에게 그 책들을 보내 주었다고 한다.

3 흑사병의 노래

1519년 여름, 쾰빙글리는 요양차 라가츠(Ragatz) 소재의 페퍼 온천장에 가 있었다. 취리히에 흑사병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한 쾰빙글

47) Ulrich Gäbler, *Ibid.*, p.45.

48) G.R. Potter, *op. cit.*, p.33.

49) Philip Schaff, *op. cit.*, p.40.

리는 즉시 귀환하여 매일 같이 병자들과 죽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러한 목회적 돌봄(Seelsorgerischen Betreuung)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다가, 그 해 9월 그도 흑사병에 걸려, 목숨까지 잃을 지경이 이르렀다.⁵⁰⁾ 교황청의 대사는 자기의 주치의의를 보내어 그를 돌보도록 까지 했다. 흑사병은 2,5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즉 취리히 인구의 1/3이상이 되는 숫자다.

이 전염병을 통한 그의 체험은 자기의 영적 생활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인다. 그는 회복된 후, 그가 작시한 그 유명한 '흑사병 노래' (Pestlied)에 곡을 붙였다.⁵¹⁾ 쾰즐리(Edwin Künzli)는 "이 시(詩)에서 처음으로 종교 개혁적 사상이 나타난다"⁵²⁾라고 언급하고 있다.

3가지 시(詩)만 소개하고자 한다.⁵³⁾

A. Im Anfang der Krankheit

질병 초기

Hilff, herr gott, hilf
in dieser not!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지여, 도와주소서
이 곤란 중에서!

Ich mein, der tod

죽음이 문앞에서 손짓하고

Sey an der thür,

있나이다.

Stand, *Christe*, für:

그리스도여, 저를 위해 일어나소서:

dann du in überwunden hast!

당신은 죽음을 승리하셨나이다!

Zu dir ich gliff:

제가 당신께 부르짖사오니:

50)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n*, heraus. Edwin Künzli

(Zürich/Stuttgart : Zwingli Verlag, 1962), p.17.

51) 각 시마다 강·약·장·단의 리듬을 가진 26행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의 시형(詩形)을 깨뜨리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그리고 이 시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경건하게 자신을 포기하는 영혼의 숨결을 느끼도록 해 준다. cf. Philip Schaff, op. cit., p.44.

52)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n*, p.17.

53) *Ibid.*, pp.17-19.

Ist es dein will, züch uß den pfyl, der mich verwundt! Nit laßt ein stund mich haben weder ruw noch rast! wild du dann glych tod haben mic in mitz der tagen min, so sol es willing sin, Thu, wie du wilt: mich nüt befil. Din haf bin ich, Mach ganz ald brich: dann, nimpst du hin den geiste min von dieser erd, thust du's daß er nit böser werd, ald andern nit befleck iräl ben fromm und sit.	저를 찢러 상처를 입히는 화살을 빼어 내심이 당신의 뜻일진대! 속히 저에게 평안을 주소서! 저의 생애 황금기에 저를 불러가심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따르리이다. 제가 당신 품으로 빨리 가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리이다. 온전하든 부서지든, 이 땅에서 당신께서 저의 영혼을 취하시든, 당신의 행위는 선하시오며, 다른 그 무엇도 거룩하고 빛나는 당신의 삶을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	--

B. Inmitten der Krankheit

질 병 중 기

Tröst, herr gott, tröst! Die Kranckheit wachßt, wee und angst faßt min seel und lyb. darumb dich schyb gen mir, einiger trost, mit gnad, die gwüß erlößt	위로하소서, 여호와 하나님ися, 위로하소서! 병은 점점 깊어만 가고, 고통과 공포가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고 있나이다. 당신께 멸망과 소망을 두는 자, 시간 속의 모든 유용한 것, 아쉬운 것을 가벼이 여기는 자,
--	--

ein yeden, der
 sin hertzlich bgär
 und hoffnung setzt
 in dich, verschetzt
 darzu diß zyt all nutz und schad.
 Nun ist es umm.
 Min zung ist stumm,
 mag sprechen nit ein Wort.
 Min sinn sind all verdort.
 Darumb ist zyt,
 dass du min stryt
 furist fürhin,
 so ich nit bin
 so starck, daß ich
 mög dapfferlich
 tun widerstand
 deß tüfels facht und fräffner hand.
 Doch wirt min gmut
 stät blyben dir, wie er ioch wut.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유일한 위로자시여,
 저에게 임하소서.
 죽음이 사방을 들렀습니다.
 저의 혀는 병어리 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저의 감각은 무디어졌습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저의 싸움을
 인도하실 때이니이다.
 마귀의 그물과 독신(瀆神)에
 용감히 맞서
 싸울 기력이 저에게는 없나이다.
 마귀가 광란하여 날뛰지만,
 저의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나이다.

C. In der Besserung

회 복 기

Gsund, herr gott, gsund!
 Ich mein, ich ker
 schon widrumb her.
 Ja, wenn dich dunckt,
 der sünden funck
 werd nit mer bherschen mich uff erd,
 so muß min mund

강건하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강건하게 하소서!
 생각하옵건대, 저는 곧 회복
 될 것 같습니다.
 진실로, 죄악의 권세에
 저의 존재가 결코
 가라앉지 않음이 당신의
 생각이시라면 저의 입술은 마땅히,

din lob unnd leer
uß sprechen mer
denn vormals ye,
wie es ioch gen,
einfaltigklich on alle gferd.

Wiewol ich muß
deß todes buß
erleyden zwar ein mal
vilicht mit größern qual,
dann yetzund wer
geschähen, her,
so ich sunst bin
nach gfare hin:

so wil ich doch
den trutz und boch
in diser wält
tragen frölich umb widergelt
mit hilffe din,
on den nüt mag vollkommen sin.

종전보다 더 많이,
어린아이처럼 밤낮으로
당신을 칭송해야 하리이다.

비록 제가 지금까지
당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수반하는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할지라도,

당신의 도움으로
땅위에서
건널 것이오며,
당신의 도움 없이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을 것이옵니다.

4. Vom Erkiesen und Freiheit der Speisen

쯔빙글리에게 종교적, 정치적 적들이 다소 있었지만, 그는 2년 동안은 별 탈없이 목회를 해나갔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그 도시에 긴장감이 감돌았다.⁵⁴⁾

1522년 사순절 저녁에 다수의 사람이 인쇄업자 프로샤우어(Christoph Froschauer)집에 모여 토론을 하고 있었다. 프로샤우어는

54) Ibid., p.20.

그 동안 일에 지쳐있었다.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를 대비하여 바울 서신들의 새로운 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의 직공들이 수주일 동안 밤낮 혹사를 당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기진맥진한 자기 직공들의 원기를 북돋우기 위해, 생선이 비싼 것을 감안하여, 푸줏간에서 고기를 좀 사오도록 자기 부인에게 부탁했다.⁵⁵⁾ 그런데 소시지가 식탁에 나왔던 것이다. 손님들 가운데는 3인의 성직자도 있었는데, 쾰빙글리, 유트(Leo Jud) 그리고 켈러(Laurence Keller)였다. 쾰빙글리는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으며, 접시가 자기 앞에 나올 때에, 그는 거절하였다. 반면에 다른 손님들은 폭식을 하였다. 시당국자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⁵⁶⁾

그 스캔들은 곧 공적 논의를 불러 일으켰고, 쾰빙글리는 자기 동료들과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 1522년 3월 23일,⁵⁷⁾ 식사 초대 받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입장에 대해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하였으며,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하여”(Vom Erkießen und Freiheit der Speisen)라는 그의 설교는 곧 출간되었다.⁵⁸⁾

그는 사도 바울의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Den Reinen ist alles rein.)는 말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가 전거로 삼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5:17, 마가복음 7:5, 사도행전 10:10ff, 고린도전서 6:12f, 고린도전서 8:8, 골로새서 2:16, 디모데전서 4:1ff, 디도서 1:10-15, 히브리서 13:9 등이다. 금식은 개인적인 포기 행위이며,⁵⁹⁾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

55) 사순절 동안에는 교회가 고기를 금하였으나, 생선은 허락하였다.

56) Jean Rilliet, *Zwingle, le Troisième Homme de la Réforme* (Paris : Librairie Arthème Fayard, 1959), trans. Harold Knight (London : Lutterworth Press, 1964), pp.67ff.

57) Jean Rilliet는 3월 29일이라고 함.

58)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n*, p.20. 책 제목은 원래 *Von Erkießen und Fryheit der spysen (De delectu et libero ciborium usu)*였으며, 이 글은 1522년 4월 16일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59) Jean Rilliet, op. cit., p.68.

이다. 쾰빙글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할 자유와 사용할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교회 당국이 이 자유를 금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위해,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진정한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자유 사용이 이웃을 진노케 한다면, 당신은 이유여부를 막론하고 그를 격노케 해서는 안된다. 그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을 것이며...

소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유를 사용하라...

강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그 누구도 분을 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연약한 자들이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라...(Wenn aber der Gebrauch der Freiheit Deinen Nächsten ärgert, sollst du ihm nicht ohne Grund Ärgernis geben, Denn wenn er den Grund sieht, so nimmt er nicht mehr Ärgernis, ...)

Mache Gebrauch von Deiner Freiheit, wenn das geschehen kann, ohne dass dadurch Unruhe entsteht,...

Belehre aber für und für die Schwachen, so gut Du kannst, bis sie wohl unterrichtet sind, damit die Zahl der Starken so gross wird, dass niemand mehr Ärgernis nehmen kann,..."⁶⁰⁾

콘스탄쯔(Konstanz)의 감독 휴고(Hugo von Landenberg)는 시당국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교회법을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협의를 했다. 그는 또한 사제단에게 쾰빙글리의 이름은 들먹거리지 않으면서 이단 사설의 유포를 막도록 경고했다. 그리고 역시 스위스의 의회에 도움을 청했다.⁶¹⁾

쾰빙글리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졌으나, 1522년 8월 22-23일 “始終辨證書”(Apologeticus Archeteles)를 펴냄으로써, Archeteles라는 말이

60) Ibid., pp.27-28.

61) Philip Schaff, op. cit., p.47.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는 그 소책자의 제목을 통하여, 그 변증서가 그의 복음 선포에 대한 변호의 처음과 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⁶²⁾

여기서 그는 자기는 잘못된 것이 없으며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취리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여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교훈에 착념키를 원치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다”(Was Christi Lehre anbetrifft, so ist in Zürich alles so in Ruhe und Frieden wie irgendwo sonst, allgemein sind auch die Laien so im Evangelium unterrichtet, dass sie keine andere Lehre annehmen wollen).⁶³⁾ 또한 그는 로마교회의 교직제도(Hierarchie)를 경고하고 있으며, 예수의 모범을 따를 것을 충고하고 있다. 이 책은 교회의 권위에 의지하여 강하게 진술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으로 꼽힌다. 에라스무스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한다.⁶⁴⁾

5. 성직자의 독신생활 폐기 청원서

1522년 봄에 쾰빙글리는 비밀리에 취리히의 귀족인 한스 마이어(Hans Meyer von Knonau)의 미망인, 안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t)와 결혼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법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민법에는 저촉되지 않았다. 그의 많은 친구들이 보조를 맞추어 주었다. 쾰빙글리는 그의 친구 10여명의 서명날인을 받은 청원서를 입안하였다. 즉 성직자들도 결혼할 자유를 가질 수 있다

62)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n*, p.42.

63) *Ibid.*, p.43.

64) Philip Schaff, *op. cit.*, p.48.

는 내용이었다. 그보다 조금 일찍이 “성직자의 서원에 관하여”(De votis monasticis)라는 글에서 루터도 같은 문제로 공격하였던 것이다.⁶⁵⁾

순결의 서원은 교만의 열매이며, 인간의 조건을 회피하려는 헛된 도덕이라는 것이다. 성행위는 결혼하므로 정당화되는 것이며 이는 곧 창세기의 교훈이라고 한다. 사도 바울도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⁶⁶⁾라고 말하고 있다. 쾰빙글리는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결혼의 정당성을 부르짖을 뿐 아니라, 교회사적인 여러 사실들을 논거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교회 초기 시절에는 사제들과 감독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힐라리(Hilary of Poitiers, St., c.315-67) 감독, 호시우스(Hosius, c.257-357) 교황⁶⁷⁾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보니파스(Boniface), 아가페투스(Agapetus), 펠릭스(Felix) 3세, 겔라시우스(Gelasius) 등과 같은 교황들 역시 사제들과 감독들의 자녀들이다. 그는 또한 회랍교회의 사제들은 결혼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묻는다. 그러나 7월 2일 자의 이 조심스러운 청원서는 휴고 감독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6. 쾰빙글리의 67개 조항과 “제1차 취리히 논쟁”

쾰빙글리의 요청으로 취리히의 대·소 양(兩) 시의회는 1523년 1월 29일 역사상 “제1차 취리히 논쟁”(Erste Züricher Disputation)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신앙 토론(Glaubensgespräch)을 개최하도록 결정했다. 약 600여명의 성직자 및 귀족들이 참석했다. 휴고 감독은 참가를 꺼렸기 때문에, 부주교(Vikar)인 파브리(Jahannes Fabri)를 참석시켰다. 쾰빙글리는 그 논쟁을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선포한 내용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발문”(跋文, Schlussreden)이라고도 불리는 “67개 조

65) Jean Rilliet, op. cit., pp.71ff.

66) 고린도전서 7장 28절.

67) 호시우스 교황은 次副祭(sub-deacon)의 아들이었다.

항”(Die 67 Artikel)을 작성하였다.⁶⁸⁾ 그는 자기의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역설하고, 성경에 근거해서만 비판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서문에 밝히고 있다.

파브리는 그 회의 자체의 권위를 부정했으나, 그 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그의 비난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취리히로 오는 도중 빈터투어(Winterthur)에서 “67개 조항”을 넘겨받았는데, 자기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받았다고 불평하였다. 그는 성직자의 독신생활과 성자들의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호하였다: “1200년 동안 성직자들의 결혼은 금지되어 왔다…” 그러자 참석자 중의 한 사람이 “그러나 그들에게 매춘부를 거느리도록 허락되어 왔다…”면서 되받아 쳤다. 성경과 전통의 주제가 역시 다루어졌다. 그러나 쾰빙글리는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할 재판관이 있어야 한다”,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영이 유일한 재판관이다”라고 외치자 더 이상 논쟁이 지속될 수 없었다.⁶⁹⁾

그 토론회가 끝난 후 시의회는 오전 회의를 토대로 확정된 선고문을 낭독했는데, “… 홀트리히 쾰빙글리 선생께서는 계속하여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거룩한 복음과 참된 성경 말씀을, …오래동안 선포하시기를…”(… daß Meister Huldrych Zwingli fortfahre und von nun an wie bisher das heilige Evangelium und die wahre heilige Schrift verkünde, so lange und so viel, bis er eines Besseren belehrt werde)라고 선고했다.⁷⁰⁾ 그리고 취리히의 다른 모든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은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것도 설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개인적인 논쟁이나 인신 공격 등을 삼가도록 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취리히에 종교개혁의 승리가 결정된 것이다.⁷¹⁾

블란케(Fritz Blanke)는 “1523년 1월, 시의회는 판결에 의해 취리히

68)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n*, p.69.

69) Jean Rilliet, op. cit., p.78.

70)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n*, p.69.

71) Ibid.

는 복음적이 되었다”(Im Januar 1523 wurde Zürich durch Ratsbeschluss evangelisch)라고 평가하고 있다.⁷²⁾

이 “제1차 취리히 논쟁”에 대해서 오버만(Heiko A. Oberman)과 게블러(Gäbler) 등은 다양한 해석과 논쟁거리를 잘 제공해 주고 있다.⁷³⁾

“67개 조항”은 6년 전에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대항하여 공포한 95개 논제(95 Thesen)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67개 조항”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서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가져온 것이고, 또한 더 많은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⁷⁴⁾ 이 조항들은 유일한 구세주요, 증보자로서의 그리스도로 꼭 차있고, 유일한 신앙의 규범(regula fidei)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최고성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으며, 교황, 미사, 성자들의 기도, 인간 행위들의 공적론, 금식, 성지 참배 여행, 독신 생활, 연옥 등등 비성경적인 인간의 계율들을 거부하며 공격하고 있다.

“67개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항 : 복음이 교회의 비준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Alle, die sagen, das Evangelium gelte nichts ohne die Bestätigung der Kirche, irren und schmähen Gott.)⁷⁵⁾

제2항 : 복음의 총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분은 참

72) Fritz Blanke, *Brüder in Christo. Die Geschichte der ältesten Täufergemeinde* (Zollikon 1525), Zürich, 1955, p.5.

73) Heiko A. Oberman, *Werden und Wertung der Reformation* (Tübingen: J.C.B. Mohr, 1979), pp.287-303, 특히 pp.300-301를 보라; Ulrich Gäbler, op. cit., pp.61-72. Gäbler는 최근의 연구까지 소개하고 있다.

74) Philip Schaff, op. cit., pp.51ff.

75) “Quicumque Evangelion nihil esse dicunt, nisi ecclesiae calculus et adprobatio accedat, errant, et Deum blasphemant.” See, Philip Schaff, *Creeeds of Christendom*, vol. III, p.321ff.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며, 자기의 순결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Summe des Evangeliums ist, daß unser Herr *Christus Jesus*, wahrer Gottessohn, uns den Willen seines himmlischen Vaters kundgetan und uns mit seiner Unschuld vom Tode erlöst und mit Gott versöhnt hat.)⁷⁶⁾

제3항 : 따라서 그리스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지복(至福)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Deshalb ist *Christus* der einzige Weg zur Seligkeit für alle, die je waren, sind und sein werden.)⁷⁷⁾

제4항 : 다른 문을 찾거나 제시하는 자는 잘못을 범하는 자이며, 영혼을 죽이는 자요, 도둑이다. (Wer eine andere Türe sucht oder zeigt, der irt, ja, der ist ein Mörder der Seelen und ein Dieb.)⁷⁸⁾

제7항 : 그 분은 자기의 몸인 모든 믿는 자의 구세주이시며, 머리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몸은 죽은 몸이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daß er das ewige Heil und Haupt sei aller Gläubigen, die sein Leib sind, der aber tot ist und nichts vermag ohne ihn.)⁷⁹⁾

제8항 : 그 머리 안에 사는 자는 모두 지체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혹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신부, 곧 보편적인 교회이다. (daß all, die in dem Haupte leben, Glieder und Kinder Gottes sind. Und das ist die Kirche oder Gemeinschaft der

76) "Summa Evangelii est, quod *Christus Filius Dei* vivi notefecit nobis voluntatem patris caelestis, et quod innocentia sua nos de morte aeterna redemit, et Deo reconciliavit."

77) "Hinc sequitur *Christum* esse unicam viam ad salutem omnium, qui fuerunt, sunt et erunt."

78) "Quicumque aliud ostium vel quaerit vel ostendit, errat: quin animarum latro est et fur."

79) "Ut sit ipse salus et caput omnium credentium, qui corpus eius sunt, quod quidem absque ipso mortuum est, et nihil potest."

Heiligen, eine Gemahlin *Christi*: Ecclesia catholica, die allgemeine Kirche.)⁸⁰⁾

제15항 :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되어야 할 이유) 이는 그 같은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이 있고, 그것에 대한 불신앙 속에 우리의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이며, 모든 진리는 그 복음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denn im Glauben an dasselbe besteht unser Heil und in Unglauben unsere Verdammnis; denn alle Wahrheit ist klar in ihm.)⁸¹⁾

제16항 : 지복(至福)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인간의 가르침과 규정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복음에서 배워 안다. (Im Evangelium lernt man, da Lehren und Satzungen der Menschen zur Seligkeit nichts nützen.)⁸²⁾

제17항 :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자신을 대제사장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예와 권세를 거역하는, 정말, 그것들을 거절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안다. (Daß *Christus* ein einiger, ewiger, Oberster Priester ist. Daraus ersehen wir, daß die, die sich als oberste Priester ausgegeben haben, der Ehre und Gewalt *Christi* widerstreben, ja, sie verwerfen.)⁸³⁾

80) "Ex his sequitur, quod omnes, qui in isto capite vivunt, sunt membra et Filii Dei. Et hoc est ecclesia seu communio sanctorum, sponsa Christi, ecclesia catholica."

81) "Qui credit Evangelio, salvus erit: qui non credit, condemnabitur. Nam in Evangelio omnis veritas clarescit."

82) "In Evangelio discimus, hominum doctrinas et traditiones ad salutem nihil esse utiles."

83) "Christus unicus aeternus et summus est sacerdos. Qui ergo se pro summis sacerdotibus venditant, gloriae et potentiae Christi adversantur, et Christum rejiciunt."

제18항 : 십자가에 자신을 단 한 번 희생 제물로 바친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의 죄를 위한, 영원히 효력있는, 그 값이 지불된 희생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는 희생이 아니며, 희생에 대한 하나의 기념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확인임을 안다. (Daß *Christus*, der sich selber einmal aufgeopfert, ein in die Ewigkeit wirkendes und bezahlendes Opfer sei für die Sünden aller Gläubigen. Daraus wird erkannt, daß die Meesse nicht ein Opfer, sondern ein Wiedergedchtnis des Opfers und eine Versicherung der Erlösung sei, die *Christus* uns geleistet hat.)⁸⁴⁾

제19항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Daß *Christus* allein Mittler ist zwischen Gott und uns.)⁸⁵⁾

제22항 :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義)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면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면 선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Daß *Christus* unsere Gerechtigkeit ist. Daraus ermessen wir, daß unsere Werke, soweit sie aus *Christus* sind, gut, soweit sie aber aus uns sind, nicht gut sind.)⁸⁶⁾

제24항 : 하나님께서 제공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 중의 치즈, 버터 식용 허가증은 교황의 기만임을 알아야 한다. (Daß kein *Christ* zu den Werken, die Gott nicht geboten hat, verpflichtet ist. Er darf also zu jeder Zeit jegliche Speise essen. Daraus zu lernen ist, daß

84) "Christus qui esse semel in cruce obtulit hostia est et victima satisfaciens in aeternum pro peccatis omnium fidelium. Ex quo colligitur, missam non esse sacrificium, sed sacrificii in cruce semel oblati commemorationem et quasi sigillum redemptionis per Christum exhibitae."

85) "Christus unicus est Mediator inter Deum et nos."

86) "Christus est nostra iustitia. Hinc consequitur, opera nostra eatenus esse bona, quatenus sunt Christi: quatenus vero nostra, non esse vere bona."

Käse- und Butterbriefe ein päpstlicher Betrug sind.)⁸⁷⁾

제26항 : 위선보다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 앞에서 있는 그대로 보다 더 낮게 위선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하는 모든 것은, 크나큰 위선이요, 가증스러운 것이다. 가운을 입는 것, 휘장을 다는 것, 삭발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Daß Gott nichts missfälliger ist als Heuchelei. Daraus können wir erlernen, daß alles, was sich vor den Menschen heuchlerisch für besser ausgibt als es ist, eine schwere Heuchelei und Verruchtheit ist. Hier fallen dahin Kutten, Abzeichen, Tonsur etc.)⁸⁸⁾

제27항 :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형제요, 서로 서로 형제이다. 땅위에 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가 되지 못한다. 수도회, 종파, 도당(徒黨) 등이 이에 속한다. (Daß alle christenmenschen Brüder Christi und untereinander Brüder sind und keiner sich zum Vater über die andern erheben soll. Hier fallen hin Orden, Sekten, Rotten.)⁸⁹⁾

제28항 :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 따라서 결혼은 모든 인간에게 알맞은 일이다. (Daß alles, was Gott erlaubt oder nicht verboten hat, recht ist. Daraus wird erlernt, daß die Ehe allen Menschen zieme)⁹⁰⁾

87) "Christianorum nullus ad ea opera, quae Christus non praecepit, adstringitur: quolibet tempore, quolibet cibo vesci potest. Consequitur ergo literas, quas pro caseo et butyro dant pontificii, Romanas esse imposturas."

88) "Nihil magis displicet Deo quam hypocrisis. Hinc discimus hypocrisim esse gravem, et impudentem audaciam quidquid sanctum se simulat coram hominibus. Hic cadunt cuculli, signa, rā년 vertex, etc."

89) "Omnes Christiani fratres sunt Christi, et fratres inter esse, patrem ergo super terram vocare non debent. Hic cadunt factiones et sectae."

90) "Quidquid Deus non vetat et permittit, juste fit. Ex quo discimus matrimonium omnibus ex aequo convenire."

제34항 : 소위 영적 권세가⁹¹⁾ 그 호사스러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 그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한다. (Die sogenannte geistliche Obrigkeit hat für ihre Pracht keinen Grund in der Lehre Christi)⁹²⁾

제35항 : 그러나 세속 정부는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실 속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aber die weltliche Obrigkeit hat Kraft und Begründung in der Lehre und Tat Christi.)⁹³⁾

제37항 :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세속 정부에 복종할 책임이 있다. (Der weltlichen Obrigkeit sind auch alle Christen, niemand ausgenommen, Gehorsam schuldig.)⁹⁴⁾

제38항 :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이 요청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insofern sie nichts gebietet, was wider Gott ist.)⁹⁵⁾

제44항 : 참된 숭배자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짖음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이다. (Die wahren Anbeter rufen Gott im Geist und in der Wahrheit an, ohne alles Geschrei vor den Menschen.)⁹⁶⁾

제49항 : 나는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격노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수많은 돈을 지불하고 창녀와 놀아나는 것은 허용되었다. (Grösseres Ärgernis kenne ich nicht, als daß man den Geistlichen zu heiraten nicht erlaubt, aber gegen Bezahlung einer Summe Geldes Huren zu halten

91) 교직제도의 권세를 말함.

92) "Potestas quam sibi Papa et Episcopi, caeterique quos spiritales vocant, arrogant, et fastus, quo turgent, ex sacris literis et doctrina Christi firmamentum non habet."

93) "Magistratus publicus firmatur verbo et facto Christi."

94) "Magistratibus publicis omnes Christiani obedire debent nemine excepto."

95) "Modo contra Deum nihil praecipiant!"

96) "Veri adoratores invocant Deum in spiritu et veritate, corde orantes, non clamore c- oram hominibus."

gestattet.)⁹⁷⁾

제50항 :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해주신다. (Gott allein vergibt die Sünde durch *Christus Jesus*, unsern Herrn.)⁹⁸⁾

제54항 :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통을 짊어주셨다.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올리는 자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다. (*Christus hat alle unsere Schmerzen und Leiden getragen. Wer nun den Bußwerken zuschreibt, was allein Christi ist, der irrt und schmäht Gott.*)⁹⁹⁾

제57항 : 참되고, 거룩한 성경은 이 생 이후의 연옥(煉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Die wahre, heilige Schrift weiß nichts von einem Fegfeuer nach diesem Leben.)¹⁰⁰⁾

제58항 : 고인(故人)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Das Gerichtsurteil über die Abgeschiedenen ist nur Gott bekannt.)¹⁰¹⁾

제59항 :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조금만 알게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려는 시도를 더 적게 해야만 한다. (Je weniger uns Gott davon hat wissen lassen, um so weniger sollen wir versuchen, etwas davon zu wissen.)¹⁰²⁾

97) "Maius et gravius scandalum non poto, quam quod sacerdotibus matrimonio legitimo interdicitur: concubinas et scorta habere accepta ab eis pecunia permittitur."

98) "Solus Deus peccata remittit, idque per solum Christum Jesum Dominum nostrum."

99) "Christus dolores nostros et omnes labores nostros tulit: qui vero operibus paenitentiaibus tribuit, quod Christi solius est, errat et Deum blasphemat."

100) "Scriptura sacra purgatorium post hanc vitam nullum novit."

101) "Defunctorum iudicium soli Deo cognitum est."

102) "Quo minus de hisce rebus nobis revelat Deus, hoc minus nobis pervestigandae sunt."

제66항 : 모든 영적 감독들은 참회해야 하며, 돈궤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높이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하게 된다. 이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Es sollen alle geistlichen Vorgesetzten sich sofort demütigen und nur das Kreuz Christi, nicht die Geldkiste, aufrichten, oder sie gehen zu Grunde; denn die Axt ist schon an die Wurzel des Baumes gelegt.)¹⁰³⁾

7. 제 2·3차 취리히 논쟁

제1차 논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뒤 지체하지 않고, 쾰빙글리는 「67개 조항의 해설서」(Auslegung und Gründe der Schlußreden oder Artikel)¹⁰⁴⁾를 펴냈다. 이 책은 일반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 그는 또한 “신적인 정의와 인간적인 정의에 관하여”(Von göttlicher und menschlicher Gerechtigkeit)¹⁰⁵⁾라는 설교를 통하여 사회 문제를 비판했는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각각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허(Locher) 같은 이는 쾰빙글리의 이런 점이 마틴 루터의 개인 차원적 윤리(individualistischer Ethik)를 능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⁰⁶⁾ 마침내, 쾰빙글리는 “미사법 논구”(De canone missae epichiresis: Versuch über den Meßkanon, 1523년 8월 29일)라는 글에서, 미사는 희생(Opfer)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피력하였다.¹⁰⁷⁾

제1차 논쟁은 자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 수도원은 문을 닫게 되고, 병원이나 학교로 사용되었으며, 세례는 자기

103) “Humilient se illico quicumque in Ecclesia sunt prafecti, crucemque Christi(non cis-tam) erigant; aut perditio eorum adest, nam securis radici arboris est admonta.”

104) Huldrych Zwingli : *Auswahl seiner Schrifteen*, pp.75-153 참조

105) Ibid., pp.153-163 참조. 1523년 7월 30일에 행한 설교임.

106) Gottfried Locher, *Zwinglische Reformation*, p.618f.

107) Ulrich Gäbler, op. cit., pp.68-72.

나라 말로 행해졌고, 미사와 성상 숭배는 거절되었다.¹⁰⁸⁾

쯔빙글리는 이상숭배와 미신적인 예식들에 대하여 과격할 정도로 반대하였지만, 무질서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찬성하지 않고, 시 정부가 그 일을 위임받아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1523년 9월, 한 무리의 시민들이 제화공인 호팅거(Klaus Hottinger)의 주도하에 취리히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슈타델호펜(Stadelhofen)의, 큰 목재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상(像)'을 전복시켜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⁰⁹⁾ 우연히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에 는 문제가 많아서, 시의회는 교회 장식들(Kirchenzierden) "그리고 다른 것들"(und anderer Dinge)에 대해 어떤 안을 만들어 보라고 1523년 9월 29일에 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8명의 시의회 의원들, 수도회에 소속해 있지 않은 교구 사제(Leutpriester)인 쯔빙글리, 엔겔하르트(Engelhart) 그리고 유트(Leo Jud)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市)의 대의회(Der Große Rat)는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갖자는 위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¹¹⁰⁾

1523년 10월 26일 월요일, 취리히로 초대하는 공고가 나붙었는데, 이는 제1차 논쟁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똑같이 초대된 것이다. 즉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었다. 시의회는 마침내 연방의 다른 12곳에도 참석 의뢰를 하였다. 시의회의 의도는 이 논쟁을 전(全) 연방적인 성격을 띠게하는 데 있었다. 쯔빙글리는 그러한 계획을 이미 1523년 여름에 펼쳤기 때문에, "제2차 취리히 논쟁"(Die Zweite Zürcher Disputation, 1523. 10. 26~28)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¹¹¹⁾ 교회 장식과 미사 문제로 인한 불화가 염려가 되어, 기독교적 행정부는, 시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찬·반을 구두로 털

108) Philip Schaff, op. cit., p.54; Hugh Watt, op. cit., p.874.

109) Philip Schaff, ibid.

110) Ulrich Gäbler, op. cit., p.72.

111) Ibid., p.73.

어놓도록 그들을 초대한 것이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시의회는 평화 유지정책(Befriedungsmaßnahman)을 고수하고 있었다. 시의회는 그 전제에서부터 개최의 성격을 담고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에글리스(Eglis)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크나큰 해석적 회의”(großer exegetischer Kongreß)로 성격지우고 있다.¹¹²⁾

그 회의에는 900여명 이상이나 참석했는데, 그 중에 성직자가 약 350명이었다. 콘스탄쯔와 바젤과 쿠르(Chur)의 감독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쟁의 주된 책임은 다시 쾰빙글리가 지게 되었다. 이번에는 유트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에는 봉록을 받는 성직자 호프만(Chorherr Konrad Hofmann)이 나와 있었다. 호프만은 제1차 때의 파브리와 유사하게, 이와 같은 문제를 시민 정부가 결정할수 있는가 하는, 그 권위를 문제삼았다.¹¹³⁾

첫 날에는 ‘상’(像, Bild)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슈미트(Kornut Schmid von Küsnacht)는 펍 온건한 입장을 가지고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는 외형적인 상들을 폐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우상을 부셔버릴 것과, 약한 자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약한 자들에게 지팡이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계속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사 커나가는 함을 설파했다.¹¹⁵⁾

시의회는 미사와 상(像)들에 관한 직접적인 폐기를 정하지 않고, 호팅거와 다른 우상 습격자들에게 실행을 주는 것으로 일단락 짓고, 쾰빙글리와 슈미트 그리고 요너(Wolfgang Joner)에게 설교와 저술활동을 계속하여 백성들을 계몽시키라는 부탁을 하였다.¹¹⁶⁾

쾰빙글리는 1523년 11월 17일, 「간략한 기독교 개론」(Kurze,

112) Ibid.

113) Ibid.

114) *Werke*, I.A, pp.459-540, in: Philip Schaff, op. cit., p.55.

115) Ulrich Gägler, op. cit., p.74.

116) Philip Schaff, op. cit., p.56.

christliche Einleitung)을 펴내었다. 이 책은 단순히 쾰링의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취리히 종교개혁의 공적인 신앙고백서”(öffentliche Bekenntnisschrift der Züricher Reformation)¹¹⁷⁾이기 때문이다. 물론 쾰링은 자기의 가르침을 다 요약하지는 않았다. 단지 몇 가지 점에 한정해서 서술했다. 이 글에서 그는 왜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교회가 자기의 견해를 따라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부분에서 쾰링은 죄들(Sünde)과 율법(Gesetz)과 율법의 폐기(Aufhebung des Gesetzes) 그리고 복음(Evangelium)에 대해서 최초로 이론적 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 다음 그는 미사와 상(像)들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 책 중간 부분에 “율법의 폐기”에 대한 견해가 수록되어 있다.

쾰링은 율법으로부터의 3중 해방을 구별하고 있다. 첫째, 성직자의 허식과 교회의 화려함은 제거되어야 할 것과, 둘째, 구원을 확보해 준다고 하는 교황의 가르침과 칙령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점과,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온한 자는 죄와의 투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하나의 겸손하고 정결한 삶을 나타내 보여준다.¹¹⁸⁾ 쾰링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은 우선 무익한 습관들과 규정들로부터의 해방(Befreiung)으로 재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쾰링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Freiheit vom Gesetz)를 오해하는 것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 세속 정부에 대한 순종을 회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종교개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위험을 언급하고 있는데, 즉 도덕적, 윤리적 갱신이 지체되고 있는 것과 시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2차 취리히 논쟁”은 첫째로, 쾰링과 그의 동료들이 또 다

117) August Baur, *Zwingli's Theologie Ihr Werden und ihr System*, vol. I (Halle, 1885), p.344, in: H. Göbler, op. cit., p.75.

118) Ulrich Göbler, op. cit., p.73.

시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시의회는 그들의 선포의 내용을 보호하게끔 했으며, 이제부터는 전통적인 교회의 존재가 취리히에서는 희미해져 간다는등, 안간다는등 하는 의문을 더 이상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로, 쾰빙글리의 역할 못지 않게 정부의 기능도 인정되게끔 했는데, 괴터스(Goeters)가 옳게 지적했듯이, “정부의 교회 지배 경향이 명백히 드러난다”(Die Tendenz obrigkeitlichen Kirchenregiments ist unverkennbar)는 점이다.¹¹⁹⁾ 셋째로, 취리히의 교회 존재의 미래적 운곽이 그려지기 시작하도록 했다는 점이다.¹²⁰⁾

“제3차 논쟁”은 보다 사사로운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1524년 1월 20일에 개최되었다. 미사 주창자들이 비록 그들이 신앙은 고수할 수 있을지라도, 시행정부의 결정 사항을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도록 명령이 내려졌으며, 그들의 주장이 논박되었다.¹²¹⁾

마지막 논쟁 기간 동안에 쾰빙글리는 성직자의 부패한 상태에 관해 설교했는데, 그 설교는 1524년 3월, 「그 목자」(Der Hirt)라는 제하에 출판되었다. 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따라, 그리스도를 이기적인 고용주들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양으로 묘사하고 있다.¹²²⁾ 그는 로마교의 감독들을 거짓 목자(falsche Hirten)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전혀 설교하지 않고,¹²³⁾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꿈들만 가르치고,¹²⁴⁾ 로마 가톨릭교의 영광만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

119) J.F.G. Goeters, *Die Vorgeschichte des Täuferturns, in Zürich*, in: *Studien zur Geschichte und Theologie der Reformation. Festschrift für Ernst Bizer* (Neukirchen, 1969), p.265.

120) Ulrich Gäbler, op. cit., p.76.

121) Ulrich Gäbler, op. cit., p.56.

122) *Huldrych Zwingli: Auswahl seiner Schriften*, pp.169-179.

123) Ibid., p.176: “Alle, die nicht lehren, sind nichts anders als Wölfe, ...”

124) “Diejenigen, welche zwar lehren, aber nicht das Wort Gottes, sondern ihre Träume, ...”

며,¹²⁵⁾ 자기들 행위로 그들의 선포를 부인하고,¹²⁶⁾ 부정한 이득을 위해 설교하며,¹²⁷⁾ 마지막으로 창조주로부터 피조물에게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자들¹²⁸⁾이라고 말하고 있다. 쾰링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을 세련된 우상숭배자들로 취급하고 있으며, 반복해서 교회의 실수들과 오류들의 뿌리로서의 우상숭배를 규탄하고 있다.

1524년 여름 동안에 감독들과 스위스 의회로부터 답변이 왔다. 양쪽으로부터 약간의 쇄신들에 대하여 반대 입장이 표명되었다. 콘스탄츠 감독이 쾰링에게 보낸 서신을 보면, 몇몇 대학과 상의해본 결과, 미사와 상(像)들은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주(州)에서는 감독의 문서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¹²⁹⁾ 성직자들과 평신도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스위스 의회는 1524년 3월 21일, 대표단을 파견하여, 쾰링이 새로운, 비기독교적인 루터파 종교를 동정한 점과 주(州)가 옛 협약과 관습들을 잘 지켜, 연방이 성직록(聖職祿)에 있어서의 부끄러운 타협 행위와 면죄부 판매와 성직자의 추잡한 삶 등을 기꺼이 근절하도록 바라는 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하여 교회와 시민의 최고 당국은 개혁을 포기하고, 취리히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개혁을 수행해 나갔다.

이상의 세 논쟁을 통해서 특기할 만한 점은, 취리히는 성직자들과

125) "Diejenigen, die das Wort Gottes lehren, aber nicht zur Ehre Gottes, sondern es auf sich und ihr Haupt, den Papst, beziehen..."

126) "Diejenige, die nicht mit ihren Werken das ausüben, was sie mit dem Worte lehren, ..."

127) "Diejenige, die nicht auf das Wohl der Armen bedacht sind, sondern zulassen, daß sie gepresst und unterdrückt werden..."

128) "... alle diejenigen falsche Hirten sind, die von dem Schöpfer zu den Kreaturen führen."

129) 그 답변은 쾰링에게 의해 작성되었으며, 1524년 8월 18일에 인쇄되었다. Werke, I.A. pp.584-630.

마찬가지로 평신도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는 점과, 자기 지방언어를 사용한 점, 종교적인 문제를 백성들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 등이다. 그러므로 취리히는 라이프찌히 논쟁보다 더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독일의 종교개혁은 군주들에 의해 결정되었다면, 스위스 종교개혁은 백성들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양 경우 다 처리자들과 다수의 주민들 간의 동정을 얻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¹³⁰⁾

8 로마식 예배의 폐지

새로운 예배 의식이 소개되기 전에 옛 예배 의식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급격히 실천에 옮기게 되었는데, 설교자들과 시 행정부가 서로 협력하여 백성의 동의를 얻어 질서 있게 진행시켰다. 그리하여 구(舊) 예배의식은 오순절에 시작하여 1524년 6월 20일에 완전히 폐지되었다.

시와 교회 당국으로부터 파견된 대표단이 건축가와 석수와 목수들을 대동하여, 취리히의 교회들의 그림들, 성골들(relics), 십자가상들, 제단들, 촛불들, 그리고 모든 예배 기구들을 철거시키고, 프레스코화를 지워버리며, 벽을 흰 도료로 칠해버렸다. 심지어 오르간까지도 치워버렸다. 그리고 성가대가 라틴어로 노래부르는 것은 금지시켰지만, 다행스럽게도 회중이 시편이나 찬송가를 지방어로 부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¹³¹⁾

스위스의 종교개혁자들은 십계명 중 제 2계명을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그들은 상(象)들과 성골(聖骨)들에게 드러지는 예배를 일종의 우상숭배로 생각했다. 쾰빙글리는 어느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30) Philip Schaff, op. cit., p.57.

131) Ibid., p.58.

분쟁은 하나님에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예를 범하지 않는 상(像)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적인 영예가 표해지는 우상에 관한 것이다. 우상 숭배의 위험이 없는 곳에는 상(像)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상들은 관용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교황주의자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상(像)들은 무식한 자를 위한 책들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책에게 배우라고 명령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¹³²⁾

그는 교회에서 우상들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¹³³⁾

9. 새로운 모습의 성찬식

미사는 폐지되고, 복음 선포와 전회중이 동참하여 애찬식(Agape)과 연관을 가지는 성찬식이 거행되게 되었는데, 개혁주의적 첫 성찬식은 1525년 4월 고난 주간에 그로스핀스터에서 거행되었다. 성찬식은 평범하고, 소박하며, 엄숙했다. 참여자들은 남자는 오른 편, 여자는 왼편으로 하여 성찬대를 둘러 앉아, 기도와 성찬 제정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요한복음 6장의 신비로운 말씀 중에서 발췌한 성경 봉독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인다. 그 다음 그들은 사역자의 간곡한 권고를 듣고서는, 나무잔과 나무컵에 담긴 신성한 상징들(떡과 포도주)을 무릎꿇은 자세로 받는다. 전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와 영적인 교통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은 쾰빙글리의 이론에 따른 것이었다.¹³⁴⁾

132) Werke, II. A., p.59.

133) Philip Schaff, op. cit., p.59.

134) William D. Maxwell, *A History of Christian Worship: An Outline of its Development and Forms*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82), pp.82-87를 참조하라.

의식 부분에서 쾰빙글리는 가톨릭의 성찬 예배 의식을 많이 존속시켰는데,¹³⁵⁾ 그러나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스위스어로 번역했던 것이다. 그리고 형식을 수정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사도신경과 시편 10편은 로마 가톨릭처럼 성직자와 집사가 아니고, 또한 루터파나 성공회처럼 성직자와 회중이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번갈아 가면서 읽혀졌던 것이다.¹³⁶⁾

그리고 이 성찬식은 1년에 4번씩 즉 크리스마스, 부활절, 오순절, 그리고 가을(Herbst)에 거행되도록 하였다.¹³⁷⁾

10. 다른 변화들

이러한 종교개혁을 있게 한 정신은 소위 ‘예언’(Prophecy)¹³⁸⁾이었다. ‘예언하기’는 쾰빙글리의 아이디어였다. 아침마다 7시에 설교자들, 전직 성직자들, 기관 목사들 그리고 라틴어 학교들의 상급생들이 구약을 공부하기 위해 교회당의 성가대석에 모였다. 참가자 중 젊은 사람이 그 날의 본문을 라틴어 성경(Vulgata)에서 라틴어로 읽으면, 한 선생이 그 본문을 다시 히브리어로 읽고 설명해 준다. 세 번째로 다시 70인 성경에서 헬라어로 읽는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라틴어로

135) 예를 들면, 初八經(Introi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Gloria in Excelsis)의 찬양, 사도신경 그리고 몇가지 답창(responses) 등이다.

136) *Werke*, II, B, pp.237ff. Gloria in Excelsis 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사 : Eer sye gott in den höhinnen!

남자 : Und frid uf erden!

여자 : Den Menschen ein recht gmütt!

남자 : Wir lobend dich, wir prysend dich.

여자 : Wir betend dich an, wir verehrend dich...

137) Ulrich Gäbler, op. cit., p.98.

138) 고린도전서 14:1을 참조하라.

된 본문을 놓고 토론을 하며, 교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설교되어야 할런지에 대하여 가르친다. 다섯 번째로 참가자는 스위스 독일말로 그 본문을 놓고 설교한다.¹³⁹⁾

이러한 실례로 미루어 보건대, 종교개혁은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안겨져야 하며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는 가정 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예언’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예언’은 곧 취리히의 아카데미의 핵이었으며, 모든 종교개혁적 아카데미의 유형이었고, 출발점이었다. 이 정신은 곧 1529년 ‘취리히 성경’(Zürcher Bibel)을 펴내게 하였다. 이 성경은 신·구약을 완벽하게 종교개혁적으로 번역한 것이었다. 성직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되었다.¹⁴⁰⁾

11. 재세례파와의 투쟁

쯔빙글리는 로마교하고만 투쟁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프로테스탄트들(Ultraprotestantism)과도 싸워야 했다. 극단주의는 재세례파(Täuferturn)운동과 일치하지만, 세례 문제는 이차적인 것이고, 과격파(Radikalen)는 교회와 사회 질서의 전체적인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것은 곧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의해 옛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과격파들은 성경으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였다. 후자는 사도 시대로 바로 올라가려 하면서 그 중간 시대를 배교(apostasy)로 취급해 버리는 것이다.¹⁴¹⁾ 과격파들은 처음엔 쯔빙글리의 설교에 환호를 보냈었다. 그레벨(Konrad Grebel)과 만쯔(Felix Manz)가 이끄는 이 과격파들은 1523년부터 쯔

139) Heinrich Bullingers Reformationsgeschichte, vol. I. pp.289-291, in: Jaques Courvoisier, op. cit., p.21.

140) Ulrich Gäbler, op. cit., pp.94-95.

141) Philip Schaff, op. cit., pp.69-76; Ulrich Gäbler, Ibid., p.113.; Jaques Courvoisier, op. cit., pp.21-22.

빙글리가 교회 개혁들을 세속 권력과 연결시켰다고 비난하면서 그로부터 등을 돌렸다. 위정자들의 권위를 문제삼고, 모든 선서를 거부하며, 군대의 힘에 의뢰하는 것도 거부하고, 자기들의 목사들을 스스로 임명한 권리를 요구하며, 유아 세례를 거절하였다.¹⁴²⁾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세례는 교육, 신앙, 회심 등을 전제하는데, 유아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세례나 구원을 위해 필요함을 부인했고, 유아들은 물세례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구원 얻거나 구원 얻을 수 있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례는 교회 회원에게 회개의 표로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잘못된 세례관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하나되기를 원하는 개종자의 재세례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¹⁴³⁾

이에 대해 쾰빙글리는 「세례와 재세례와 유아세례에 관하여」(Von der Taufe, von der Wiedertaufe und von der Kindertaufe)라는 책을 1525년 5월 27일에 펴내었다. 이 책은 1524년 말에 있던 회의와 1525년 1월에 있는 논쟁 때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여기서 그는 유아세례의 합법성을 변호했는데, 세례란 할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징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세 번의 공개 토론을 갖는 등, 그레벨과 만쯔의 사상에 가담한 사제 뢰마이어(Balthasar Hubmaier)와 대립했는데,¹⁴⁴⁾ 그는 세례파들이 그들의 사상에서 돌이키도록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러나 실패했다. 시의회가 직접 간여하게 되고, 몇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주동자들을 물 속에 던지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시의회는 만쯔에게, “물로 범죄했기 때문에 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여 호수에 익사시켜 죽였던 것이다. 이 비극적인 처형으로, 세례파 운동은 취리히에서 자취를 감

142) Richard Stauffer, op. cit., p.64.

143) Philip Schaff, op. cit., p.76.

144) 쾰빙글리는 1525년 11월 5일에 *Antwort über Balthasar Hubmaiers Taufbüchlein*이라는 글을 썼다.

추게 되었다.¹⁴⁵⁾

Ⅳ. 성만찬 논쟁

쾨빙글리의 성만찬에 관한 진술은, 그가 취리히로 오기 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해에 대하여 그가 주의를 환기시킨 점에서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쾨빙글리는 에라스무에 의존하여, 성례의 영적교제적 성격(Gemeinschaftscharakter)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6장 53-56절은 영적으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어거스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1522년 감독 휴고에게 보내는 답변서, “발문”, 해설서 등에서 그와 같은 생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¹⁴⁶⁾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 말년에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를 위한 “기독교 신앙 해설”(Auslegung des christlichen Glaubens)이라는 책에 그의 성만찬론이 간단 명료하게 서술되고 있다:

자기 신앙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 보다 인간에게 더 관심있는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우리는 성만찬을 거룩한 것들의 표시와 상징으로서 존중하며 공경한다. 그러나 성만찬 그 자체가 바로 상징들인 그것들이 아니다. 상징이 그것을 나타내는 그것 자체라고 주장할 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지금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 자연적이고 실제적인 몸은 자연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먹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으로 먹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태어나셔서, 고통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바로 그것과 똑같은 속성과 본성으로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그리스도의

145) Richard Stauffer, op. cit., pp.64ff; Ulrich Gäbler, op. cit., pp.116-118.

146) Ulrich Gäbler, op. cit., p.118.

몸이 먹여진다고 가르치는 교황주의자들은 얼마나 무엄하고 어리석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인가.¹⁴⁷⁾

“미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제(Realpräsenz)”에 관하여 쾰빙글리는 루터와 견해를 달리했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성만찬의 영적인 성격을 취하고 있다. 즉 “이것은 나의 몸이다(Dies ist mein Leib).”라고 했을 때, ‘이다’가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이다’는 ‘의미한다’(bedeutet)로 해석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¹⁴⁸⁾ 그에게 있어서 성찬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과 참여자들을 위한 기념식이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이다.¹⁴⁹⁾

루터는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임재(Realpräsenz)를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¹⁵⁰⁾ 루터가 주장하는 성찬 때의 그리스도의 양태(mode)는 로마 카톨릭과 다른 개신교 전통과는 판이하다. 물론 그는 떡과 포도주가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과 피로 변형된다는 로마의 가르침에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신자나 불신자는 똑같이 성찬 때에는 그리스도의 실제의 몸과 피를 씹는다고 주장한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어떤 점에서 사제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떡과 포도주의 변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허락하시니까 그리스

147) Zwingli, *Hauptschriften*. Zwingli, *der theologie*, ed. R.P-fister(zürich, 1948), iii, pp.301, 304, 315-16.

148) Ulrich Gäbler, op. cit., p.119. 쾰빙글리가 ‘ist’를 ‘bedeutet’로 이해하게 된 것은 네델란드의 인문주의자 Cornelius Hoen(Honius)의 편지를 접하고 부터이다. See Bernhard Lohse, *Epochen der Dogmingschichte*, tr. F.E. Stoeffler, *A Short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²), p.172.

149) G. R. Potter, op. cit., p.35.

150) Ulrich Gäbler, op. cit., p.118.

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이다. 더욱이 루터에게는 그러한 임재가 전적인 임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로, 루터는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루터에게 있어서, “영적인 임재”라는 말은 충분하고도 전적인 임재를 충분히 내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 임재의 개념은 공간적인 특징들을 내포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를 주장했으며, “est”의 형이상학적 토론에 포함되기를 거부했다.¹⁵¹⁾ 쾰빙글리와 루터와의 이러한 상이점으로 인해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걸던 부처(Bucer), 외콜람파디우스(Occolampadius) 그리고 멜랑톤(Melanchthon)과 같은 인물들을 불안케 만들었다. 개신교가 계속 진전하려고 한다면, 남부 독일의 도시들이 예배의 자유를 획득하려 한다면, 그들 종교개혁 지도자들과 개신교 제후들이 프랑스, 스위스, 가능하면 베니스 등과 힘을 합쳐 반(反)합스부르크 동맹(anti-Habsburg coalition)을 체결하려 한다면, 반드시 타협이 이루어져야 했다.¹⁵²⁾ 쾰빙글리와 루터 사이의 중재는 부처(Bucer)가 맡았다. 그는 쾰빙글리와 함께 실제 임재를 거절하였고, 영적으로 먹고 마심(geistliche niefung)을 강조했다. 그리고 루터와 함께 그는 성찬에 있어서 영혼을 위한 하나의 유익한 은사(eine heilsame Gabe für die Seele)를 인식하고 있었다. 정치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헷세의 필립 공(hessische Landgraf Philipp)이 모든 개신교의 힘을 결집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통일을 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학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들을 마르부르크(Marburg)로 초빙하였다.¹⁵³⁾ 그리하여 루터와 쾰빙글리는 1529년 10월

151)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ed. John Dillenberger(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1), pp. X X I I, 197, 234-39, 255-59, 344-358.

152) G. R. Potter, op. cit., p.35.

153) Ulrich Gäbler, op. cit., p.122.

1일부터 3일까지 마르부르크에서 그들의 일생 중 유일한 종교정상회담을 가졌다. 비텐베르크로부터 루터와 멜랑톤이, 슈트라스부르에서 부처(Bucer)가, 바젤로부터 외콜람파디우스, 그리고 주리히에서 쾰빙글리가 참석하였다. 삼위일체, 원죄, 세례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에 도달했으나 성찬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¹⁵⁴⁾

‘이것은 나의 살이다’(hoc est corpus meum)라는 말을 루터가 제시하자 그 두사람은 4일 동안 논쟁이 계속 되었다. 그들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다. 쾰빙글리는 반대 의견으로 “육은 무익하다”(caro non prodest quicquam)¹⁵⁵⁾라는 말을 제시하자, 루터는 그 말은 문제의 초점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쾰빙글리는 “아니오, 이 본문 말씀은 당신의 목을 부러뜨릴 것이요”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급하게 되지는 않을걸” “목들이 여기서 그렇게 쉽게 부러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헛세에 있지, 스위스에 있지 않네”라고 대답했다.¹⁵⁶⁾ 그 회의의 막판에 문제가 되었던 공보(communique)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사인을 하였고, 갈라진 틈의 범위는 교묘하게 감춰져졌다.¹⁵⁷⁾

154) J. L. Gonzalez, 「종교개혁사」, 서영일 역(서울 : 은성, 1987), p.90; Jean Rilliet, op. cit., pp.226-267; Ulrich Gäbler, ibid., p.122.

155) 요한복음 6 : 63: “Spiritus est qui vivificat, caro non prodest quicquam”.

156) A. Erichson, “Strassbürger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s”,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iv(1881), p.42, in : G. R. Potter, op. cit., pp.35-36.

157) 14개 조항에서는 완전 일치로 보았으나, 15번째 조항에는 논쟁적인 성만찬 교리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Fifteenth, we all believe and hold concerning the Supper of our dear Lord Jesus Christ that both forms should be used as instituted by Christ ; also that the mass is not a work whereby one obtains grace for another, dead or living ; also that sacrament of the alter is a sacrament of the true body and blood of Jesus Christ, and that the Spiritual partaking(논자 주 :

게블러(Gäbler)는 이 성만찬 논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성만찬 논쟁 이전부터 쾰빙글리와 루터는 상호 빛나가는 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 논쟁은 소격(Entzweiung)의 과정으로서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항상 계속되는 배치(Divergenz)에서 명백하게 되는 한 과정이 문제이다. 그러한 배치는 동시에 개신교의 교파 생성으로 이끈다. 셋째, 쾰빙글리와 루터에게는 그 토론이 하나의 다른 의미를 주고 있다. 쾰빙글리는 종교개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상대편을 설득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마르부르크 회담이 있기까지 쾰빙글리는 상대편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루터는 쾰빙글리와의 토론에서 칼슈타트(Karlstadt)와의 논쟁의 연속을 보았다.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실재적 임재(Realpräsenz)에 관한 논쟁에서 루터는 혼자 유혹에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음모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평가가 있지만, 하여튼 루터의 표현대로 “서로가 다른 영을 가졌기”¹⁵⁸⁾ 때문에 곤잘레스(González)가 지적했듯이 “성찬에

geistliche Nießung) of this body and blood is especially necessary for every Christian. In like manner that the use of the sacrament has been given and ordained by God, as was the Word of God Almighty, in order that weak consciences might be moved to faith by the Holy Spirit. And that, although we are at this time not agreed as to whether or not the true body of Christ is corporeally present in the bread and in the wine, each party should still show Christian love toward the other, insofar as consciences will permit, and both of parties, should pray diligently to God that by his Spirit he might confirm to us the true understanding.” [Die Bekenntnis-schriften der evangelisch-lutherischen Kirche (Göttingen : Vandenhoeck und Ruprecht, 1952), p.65, ¶.15-26. in : Bernhard Lohse, op. cit., p.175.]

158) See, Paul Tillich,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ed. Carl E. ERAATEN (New York : A Touchstone, Book, 1968), pp.261-262. 티리히는 ‘다른 영’을 라틴어 경귀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루터는 ‘유한은 무한을 그 자체 안에 가질 수 있다’ (finitum capax infiniti)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관한 이들의 서로 다른 견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는 물질과 정신의 관계에 대한 이들의 대조되는 견해의 연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곧 하나님의 계시의 성질에 관한 이해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⁹⁾

V. 쾰빙글리의 종교개혁의 확산과 그의 최후

쾰빙글리의 활약으로 종교개혁은 스위스에서 확고한 발판을 다져 나갔다. 쥘리히의 종교개혁은 정말로 스위스 연방에 깊은 동요를 일으키고도 남았다. 그러나 외콜람파디우스를 중심으로 바젤이, 할러(Berthold Haller)같은 이를 중심으로 베른이 종교개혁의 승전고를 울리고 있었다. 그런데 연방 내에서 힘의 균형을 쥐고 있던 베른 주(洲)는 사실 쾰빙글리의 정책에 약간 머뭇거리는 면이 있었다. 이는 그들에게 쾰빙글리가 너무 급하게, 너무 멀리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쾰빙글리의 궁극적인 프로젝트는, 베른과 쥘리히가 “같은 멩에를 멘 두 마리의 황소처럼” 스위스 전역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베른 주의 영주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쥘리히 자체에서 교회 분야의 짐을 되도록 적게 지려 하였다. 그들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건들의 돌출로 인해 풀이 죽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쾰빙글리는 자기 사표서를 제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 사표서는 시의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의회는 여전히 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¹⁶⁰⁾

1531년, 여러 가지의 사소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개신교 측의 주(洲)들이 경제 봉쇄 정책을 취한 데 대하여 화가 난 가톨릭 측 주(洲)들이 비밀리에 전투를 준비해 왔다. 1531년 10월, 드디어 제 2의

159) J. L. González, op. cit., p.91.

160) Jaques Courvoisier, op. cit., p.24.

시민전쟁(Civil War)이 연안 앞바다에서 발발하였다. 가톨릭 측 주의 군대가 카펠에서 취리히 군대를 격퇴시켰다. 취리히는 불행하게도 준비 없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에서는 피를 흘렸다. 베른은 예상되는 전장(戰場)으로부터 먼 곳에 자기 군대를 포진시키고 있어서, 취리히만 홀로 전투에 임했던 것이다. 군중 목사로 참여했던 쾰링거는 그 전투에서 살해되었다.

그의 죽음에 관하여는 미코니우스(Myconius), 부쨌(Bucer) 그리고 불링거(Bulinger)의 글들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들이 진술하기로는, 쾰링거는 대단히 많은 적군들에게 압도된 몇 사람의 자기 백성들을 보고서는, 그들을 구해내든 아니면 그들과 함께 죽든, 적진을 향해 돌진하였다고 한다. 전투가 끝난 후 저녁 무렵, 군인들에게 발견된 그는,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은 채로, 눈을 하늘을 응시하며 땅 위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그의 시체는 화장되어 그 재는 뿌려졌다고 한다.¹⁶¹⁾

그는 쓰러졌을 때에, “차이가 없다” “그들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¹⁶²⁾

쾰링거가 죽은 후에도 종교개혁은 중단되지 않았다. 한 인간은 살해될 수 있어도, 그의 이념들은 존속되기 때문이다. 쾰링거의 영적인 유산은 그의 사위인 불링거에 의해 전수되었고, 후에 부쨌에 의해, 마침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에게 빛진 칼빈에 의해 나타났다. 더구나 베른이 쾰링거의 정치 운동에 쌀쌀맞게 대했다면, 그것은 종교개혁에 더 애착을 가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의 정치력에 감사하고 있는 베른은 오늘날 스위스의 불어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에게 새로운 이념들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후원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종교개혁은 제네바에 착

161) Ibid., p.25.

162) Walther Köhler, *Das Buch der Reformation Huldrych Zwinglis* (München : Reinhardt, 1931), p.346.

근되었고, 유지될 수 있었으며, 그곳으로부터 프랑스로 뻗어나갔던 것이다. 만약 베른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제네바에서 칼빈의 사역은 생각되어질 수 없다.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망명객들이 후일에 자기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을 칼빈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장로교와 청교도주의가 칼빈의 제네바에서 나왔다면, 그것들이 역사상 중요했다면, 베른과 궁극적으로는 쾰빙글리가 그것이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¹⁶³⁾ 그 운동은, 스위스의 역사가 가르리아르디(Enst Gagliardi)에 따르면, “단언코 가장 큰 영향이 스위스로부터 전바깥 세계로 내뿜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Ⅶ.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바 대로 쾰빙글리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자요, 신학자로서의 쾰빙글리의 평판은 적당하다고 하겠다. 인문주의의 학문의 방법은 그의 신학 작업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는데, 특히 원전연구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러한 영향에서였다.

그러나 그가 흑사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는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종교개혁가의 자세를 갖추게 된다. 그런데 아인지델른에서 사역하면서 그는 루터보다 1년 빠른 1516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관한 설교, “성직자의 독신생활 폐기 청원서”, “67개 조항”, “공개토론회”에서의 승리, 로마식 예배 폐지, 개혁주의적 성찬식 거행, 학교설립, “예언” 운동, 제세레파와의 논쟁, 성만찬 논쟁 등에서 보여준 그의 활약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향한 그의

163) Jaques Courvosier, op. cit., p.25.

뜨거운 열정을 읽을 수 있으며, 바로 그러한 열정이 칼빈을 있게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쯔빙글리는 성경을 중심 위치에 올려 놓은 자이며, 성경을 경건의 샘으로 만들었다. 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행위에 의한 구원 성취를 반대하였다. 금욕주의, 교회장식, 기도들의 복창 등은 병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중하는 종교에, 그리고 공적이거나 개인적인 자선 사업등을 개발하는 즉 종교라는 용어가 실천적인 구체적 용어로 바뀌어지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종교에 굴복된 것이다. 쯔빙글리주의는 지성주의와 도덕주의로 가는 위험은 항상 안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사회적 실재들 가운데에 신앙을 깊이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배타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자라면, 보이는 교회를 그 말의 가장 충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간주하여 성경이 교회의 구조에 관하여 안내하고 있음을 믿는 자라면, 사역자들을 교회의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우주적 왕권과 관련하여 정부, 정치학, 그리고 사회 윤리학을 상술하는 자라면, 바로 쯔빙글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최초의 사람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